

연말까지 학생생활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수능 후 학생 일탈·비행 예방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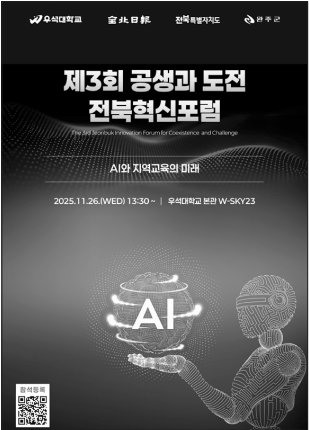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연말까지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해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안전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으로는 PC방, 노래방, 스터

디카페, 체육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도 강화한다. 각급 학교 교감, 교무부장 및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생활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활동, 가출·흡연·음주 등 일탈행위 예방교

육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수능 이후는 학생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시기인 만큼, 학생생활교육을 위한 공동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와 지역 교육의 미래’ 우석대, 26일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6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당대 W-SKY 23에서 ‘제3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I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AI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과 미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생명 산업과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 AI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AI 기반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특별강연에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나서 ‘AI 시대를 이끌 인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30 전북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AI 전문인재 양성과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운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겸 AI혁신추진위원장이 ‘전북경제, 풀짜 탈출의 기회가 왔다’라는 주제로 지역 경제발전과 AI 혁신 전략의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AI 시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교육 혁신 모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지역사회와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행복한 가족관계 마음근육 키우기’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대상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13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8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마음근육 키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내 긍정적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선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선중 교수가 부모의 마음 회복을 위한 ‘마음근육 키우기’ 실천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 교수는 다년간의 상담·치유 경험을 토대로 자기이해와 감정조절, 공감적 경청, 긍정적 언어 사용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족 소통기술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가족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매우 유익했다”며 “아이와의 대화에서 감정 표현을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기업분석(IAP) 경진대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2025 기업분석(IAP)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 익산여성새일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기업 구조와 직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경력개발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실질적인 진로 탐색 역량을 높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새참교육, 내일 2차 포럼 개최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 이하 새참교육)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차 포럼은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 교육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김승환 전 교육감과의 대담에 이은 2차 포럼으로 안민석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담과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교육 대전환이라는 내용으로 교육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노병섭 대표는 “입시 경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공동 합체제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열린 ‘사학인의 밤’.

전북대 사학과 학생·교수·동문 교류의 장

‘사학인의 밤’ 성료

전북대학교 사학과(학과장 박정민)가 지난 13일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사학인의 밤’을 열고 학생·교수·동문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박정민 학과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부 학술발표제와 2부 동문초청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학술발표제에서는 총 15명의 학생이 직접 제작한 창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소논문과 단사기행문, 웹툰, 영상 등 전통적 연구 방식부터 디지털 기반 콘텐츠까지 폭넓게 구성됐고, 한국사·동양사·서양사 등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들이 소개돼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혔다. /장은성 기자

이어진 2부에서는 사학과 동문인 장기재(02학번·완주군청 학예연구사), 황영성(09학번·전주지방법원 재판연구관)이 강연자로 나서 사학과 출신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한편 1951년 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대 사학과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온 전통 있는 학과다. 박정민 학과장은 “이번 ‘사학인의 밤’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동문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과 발표를 통해 사학과 미래 가능성과 역량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추장이 암을 막는다고?’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항암효과 과학적 입증
백진영 학부연구원, 동물실험 통해 대장암 억제 등 확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식품영양학과 분자대사영양학연구실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고추장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지난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백진영 학부연구원(지도교수 한안나)이 최근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고추장 섭취가 실제 종양 형성을 억제하고, 관련된 분자대사학적 기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고추장이 장내 미생물 군집

백진영 연구원

을 개선하고 대사산물 변화를 유도해 종양 성장 억제에 작용한다는 분자적 기전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백진영 연구원은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전통 발효장류의 생리활성을 연구해 왔는데, 이번 수상으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대학원 진학 후에는 전통 장류의 새로운 건강기능성과 관련 분자대사영양학적 기전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안나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추장의 항암 기전을 세포 수준을 넘어 동물 수준에서 규명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 조절 효과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 K-푸드와 K-장류가 주목받는 가운데, 고추장의 과학적 기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완주서 생체기반 정서치유 프로그램 실증

자연 기반 활동과 생체데이터 AI분석 결합… 아동 정서안정 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하루완주 오감힐링로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완주군 치유농장 ‘허브스팍’과 ‘예촌힐링스테이’에서 완주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회복과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프로그램 전·후로 생체심리검사(VibrImage)를 적용해 학생들의 정서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생체·심리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는 방식은 국내 교육현장에서도 흔치 않은 접근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검증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숲·정원활동,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베리 디지털 만들기, 정원 명상 등 자연 기반 체험을 진행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이후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감정이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정서지표 개선 정도는 생체심리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은지 완주군 교육정책과장은 “자



‘하루완주 오감힐링로드’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진=전주기전대학 제공>

연 체험과 데이터 기반 정서측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아동 정서안정 교육의 혁신적 모델”이라며 “완주군은 학교·대학·지역농장이 함께하는 치유교육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완주9경·9품과 지역 농장을 연계한 치유농업 모델이 초등학교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생체심리 분석을 포함한 체계적 검증을 통

해 완주형 치유·관광·교육 융합모델을 선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치유농업과 최원우 학과장은 “생체데이터 분석에서 학생들의 긴장 감소와 안정감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 치유활동과 데이터 기반 평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아동 정서발달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늘봄학교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2025 늘봄지원실장 성과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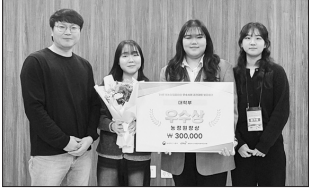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 늘봄지원실장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행정 지원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2026년 전북형 늘봄학교의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늘봄지원실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

점을 뒀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보고서 중 우수보고서 발표를 통해 학교간 정책 확산과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역별 늘봄학교 운영 우수사례로 △순창초(김근중) 학부모 재능기부 등 △이리모현초(박은진) 안전시스템 구축 등 △삼천남초(양선애) 늘봄학교 환경개선 등 △진안초(김혜숙) 학교밖 늘봄기관 연계 등을 발표했다.

도시형 식물 라이프스타일 창업모델 제시 ‘호평’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행복창업PLAN) 소속 학생들이 지난 13일 세종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열린 ‘영농창업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에서도 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형 창업모델을 제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전국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대에서는 원예분야 영농창업동아리인 ‘리프(LIFE)’가 대표로 참가했다. 지난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동아리 리프는 ‘삶에 식물을 더하다



(Life+Leaf)’를 주제로 식물 입문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시 환경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상품·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시장조사, 제품 기획·개발, SNS 홍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제 창업과 유사한 실무 능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학습을 넘어 기

획력과 경영 감각, 소통 역량 등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종합 역량을 갖춰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추진해온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체계와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황인호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며 “창의성과 실천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길러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구 부단장은 “동아리 기반 창업교육은 과제 수행을 넘어 학생들이 농업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경험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사업단의 교육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